



[산업] 완성차업계 '체험이 곧 마케팅' 이색 브랜드 가치 전달 05



Economy

↓ 코스피	↓ 코스닥
2308.46 (-0.52)	826.91 (-4.94)
↑ 금리 (미국 기준)	↓ 환율 (원/달러)
2.00 (+0.02)	1121.10 (-2.10) (19일)

南北 비핵화 진전,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금지 '합의'

한반도 '核 없는 평화의 땅' 멀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미사일발사대 등 영구 폐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순, 올해 서울 방문 약속도

남북정상, 오늘 백두산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빠르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한다.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군
사공동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는
등 전쟁 위험을 제거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 3, 4, L7〉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기로 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조
치의 하나로 평북 철산군에 있는 동
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
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을 오가는 동해선·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도
올해 안에 갖는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
족 상설면회소를 빠르게 연다. 화
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
선 해결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정은 위원장은 일정 마지막날인 20
일 백두산을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
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
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
다"면서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
야이행합의서'를 이날 평양공동선
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
인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
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가까운 시
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
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전날과
이날 이어진 평양정상회담에서 처
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합
의했다. 특히 '비핵화 의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욕성이 처음으로 전파
를 뒀다.

김 위원장은 "수십 년 세월 지속
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면서 "조
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고 밝
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과 북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경제·문화·의료 등의 교류
와 협력도 더욱 넓혀나가기로 했
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나기로 했
다"면서 "환경이 조성되는대로 개
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
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이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김승호 처장(팀장)
이범중·구서윤·나유리·정연우 기자

시밀러 1상·신약 3상부터 '자산화'

제약·바이오 회계지침 마련 오류 자체 수정하도록 유도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
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부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논
란이 지속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
떻게 해야 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

이와 함께 현재 감리를 진행 중
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가 있
더라도 스스로 바로 잡을 경우 제재
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
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다. 감
독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약품유형에 따라 자산화 단계가
달라진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
의 유사성이 검증된 임상 1상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
다.

반면 신약은 임상 3상부터다. 장
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
약의 안정성과 약효 등에 대한 검
증을 거쳐야 자산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네릭(복제약)은 오리지널 약
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
등한 지를 검증하는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했을 때부터, 진단시
약은 허가신청이나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검증 단계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감독지침이 있더라도 회사는 개
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
거로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리 과정에
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
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
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
로 인식해 원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
을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주식
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번에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한
만큼 과거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
는 제재보다는 시정을 요구해 재작
성토록 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I SEOU U
내리 내리세

자세한 정보는 seoul.go.kr

올 추석,
전통시장도
소상공인 마음도
환해지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환해지도록!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전통시장 117개소 주차차 허용(18.09.13-10.07) /
금액별 경품 제공 / 제수용품 할인행사 /
제기차기, 송편나누기 등 다양한 이벤트

소상공인, 힘나도록!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결제수수료 0% 서울페이(가맹) 추진 /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
유급병가제·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
최저금리 긴급자영업자금 / 상가밀집지역 주정차단속 유예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